

금성(金城)에서 월성(月城)으로: 사로국 왕권의 공간 전환과 경주분지의 산림수택(山林藪澤)*

서민수**

- I. 머리말
- II. 사로국 초기 거점과 금성
- III. 월성 입지 선정과 산림수택
- IV. 월성의 형성과 산림수택의 공간 전환
 1. 경주분지 중앙부의 개발 지체
 2. 수문환경과 월성의 형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사로국 초기 왕권의 중심 공간이 금성에서 월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경주분지 산림수택(山林藪澤)의 공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왕권 중심 공간의 이동이 어떠한 자연환경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왕권이 이를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점유하고 재편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금성·궁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로국 초기 지배집단의 근거지는 남산 서록 일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탈해의 월성 입지 전승과 고구려·백제의 도읍지 선정 기록을 비교하여, 경주분지 중앙부의 산림수택이 자원 확보와 방어, 그리고 왕권의 상징성 측면에서 새로운 왕성 입지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주분지 중앙부의 수문환경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월성의 단계적 형성 과정을 왕권의 환경 제어와 공간 재편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왕성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新羅 上代 山林藪澤과 王京 경관 변천」(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제2장 제3절의 논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 순천향대학교 향설인문학진흥원 책임연구원. sexymindu@hanmail.net.

입지의 이동이 아니라, 사로국 왕권이 경주분지 중앙부의 산림수택을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환경 제어 경험과 공간 운영 역량은 이후 경주 왕경의 형성과 도시 구조 재편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키워드 : 금성, 월성, 사로국, 산림수택, 공간 전환, 환경사

I. 머리말

신라 초기 왕성의 형성과 변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금성(金城)과 월성(月城)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 연구는 월성의 위치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금성의 위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문헌에는 금성과 월성의 위치 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서술이 전하며, 그에 따라 남산 서록설, 경주읍성 일대설, 월성 이칭설, 일반명사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¹⁾ 그러나 금성의 실체와 위치 비정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데 비해,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왕성 입지 전환이 어떠한 자연환경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왕권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점유하며 재편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왕성 입지 전환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기 왕성의 공간 전환을 자연환경과 왕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경주분지 중앙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던 산림수택(山林藪澤)²⁾이 왕권의 선택과 개입을 거치면서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본고는 왕성의 전환을 입지 이동으로 이해하기보다, 왕권이 자연환경의 제약과 가능성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중심 공간을

1) 금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주읍성 일대설, 알천 유역설, 황성동 일대설, 첨성대 부근설, 남산 서록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각 견해의 정리와 연구사 검토는 박경택, 2017: 102-104; 전덕재, 2022: 27-28.

2) 山林藪澤은 고대 중국 문헌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자연공간과 그 자원 조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던 용어이다(劉翠溶, 1999: 2-3). 이는 특정 지형을 가리키기보다 숲·습지·하천·산간 계곡 등 인간의 이용과 개척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연공간 전반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를 경주분지 중앙부에 분포하였던 숲과 습지, 용천천 주변 저습지 등의 환경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산림수택은 숲과 습지의 환경적 특성뿐 아니라, 아직 왕권과 왕경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구축해 가는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금성·궁실·시림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사로국 초기 지배집단의 근거지가 남산 서록 일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해당 거점이 안고 있던 환경적 제약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탈해의 월성 입지 전승과 고구려·백제 초기 도읍지 선정 기록을 비교하여, 경주 분지 중앙부의 자연환경이 새로운 궁성 입지의 조건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월성 주변의 수문환경과 고고학적 정황을 검토하여 해당 공간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궁성 중심지로 전환되었는지를 추적하고,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공간 전환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사로국 초기 거점과 금성

월성으로의 공간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의 왕권 공간이 어떠한 환경 위에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① (기원전 37년)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³⁾

가-② (기원전 32년) 봄 정월에 금성에 궁실(宮室)을 지었다.⁴⁾

가-③ (65년) 봄 3월에 왕이 금성 서쪽 시림(始林)의 나무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瓠公)을 보내 살펴게 하니 금빛의 작은 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⁵⁾

가-④ (101년) 봄 2월에 성을 쌓고 월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⁶⁾

가-⑤ 처음 혁거세 21년 궁성(宮城)을 쌓고 이름을 금성이라 하였다. 파사왕 22년 금성 동남쪽에 성을 쌓아 월성 혹은 재성(在城)이라고 불렀는데, 둘레가 1023보였다.⁷⁾

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21년, “築京城 號曰金城”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26년, “春正月 營宮室於金城”

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9년, “春三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鷄鳴聲 暹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鷄掛樹枝 白雞鳴於其下”

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2, 파사이사금 22년, “春二月 築城 名月城”

7)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初赫居世二十一年 築宮城 號金城 婆娑王二十二年於 金城東南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周一千二十三步”

나-① (기원전 37년) 갑신(甲申)에 금성을 쌓았다.⁸⁾

나-② (알영의)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은지라 월성의 북쪽 냇가에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가 그 냇가 이름을 발천(撥川)이라 하였다. 궁실을 남산 서쪽 기슭에 짓고 두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⁹⁾

나-③ (60년) 호공이 밤에 월성 서리(西里)를 가는데 시림[구림(鳩林)이라고도 한다]의 가운데 크고 밝은 빛이 있으며, 자색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뻗쳐 내려온 것을 보았다. 구름 속에 황금 상자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빛은 상자로부터 나오며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¹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금성과 월성을 왕의 거처로 언급하지만, 두 기록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와 서술상의 혼선이 존재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 금성이 축조되었고(가-①), 5년 뒤 금성에 궁실이 마련되었다(가-②). 『삼국유사』 역시 같은 연대에 금성이 축조되었다고 전하지만(나-①), 궁실은 어린 혁거세와 알영[二聖兒]을 기른 장소로 언급되어 금성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나-②).

이에 따라 혁거세 즉위 이전 남산 서록에 이미 궁실이 존재하였고, 즉위 이후 축조된 금성과는 별개의 장소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박대재, 2014: 347). 그러나 『삼국유사』 왕력(나-①)이 기이편 본편(나-②)과 다른 경위로 편찬되고 이후 하나의 책으로 통합·제본되는 과정에서 부록으로 첨부되었다면(박대재, 2009: 51), 나-②의 궁실 관련 서술은 시제별로 분절하여 해석하기보다 사로국 초기 집권세력이 금성을 축조하고 궁실에 거주했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가-②의 금성 궁실과 나-②의 남산 서록의 궁실은 동일한 장소를 지칭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성은 남산 서록 일대와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의 방위 기술 문제를 간략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지리지(가-⑤)에는 금성의 동남쪽에 월성이 위치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금성이 남산 서록에 있었다는 나-②의 서술과 현재 월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방위상 모순을 야기한다.

8) 『삼국유사』 권1, 왕력, “甲申築金城”

9)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혁거세왕, “...然而唇似雞觜將浴於月城北川其觜撥落 因名其川曰撥川 營宮室於南山西麓 今昌林寺 奉養二聖兒”

10)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알지탈해왕대, “永平三年庚申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一作鳩林]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櫃 掛於樹枝光自櫃出 亦有白雞鳴於樹下”

11) 창립사지와 가까운 나정 근처의 일정 지역(이종욱, 1982: 65), 남산 서북록(박대재, 2014: 346-348)에 비정한 견해가 참고된다.

이 모순을 해소하고자 후대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금성은 부(府)의 동쪽 4리에 있다”¹²⁾는 기록을 근거로 경주읍성에서 월성 북편에 이르는 지역에 금성을 비정하는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다.¹³⁾ 그러나 이는 가-③에서 금성 서쪽에 시림(계림)이 있었다고 한 기록과 충돌한다. 오늘날 계림은 월성 서북편에 인접해 있어, 해당 비정에 따르면 금성의 위치를 설정하기 어렵다. 한편 남천 건너편 전인용사지 일대를 금성으로 보면서, “부 동쪽 4리”를 정동(正東)이 아닌 울산 방면 교통로상의 동남향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정연식, 2016: 70-75).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고적 항목의 방위와 거리 서술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박경택, 2017: 113), 남천이라는 자연 경계를 기준으로 반대편을 ‘동쪽’으로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해석 역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금성은 부 동쪽 4리에 있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경주분지 내에 남아 있던 미상의 유지(遺址)를 금성으로 인식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방위 불일치는 찬술 과정의 문제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지(가-⑤)에는 본기의 금성·월성 기사(가-①, ④)를 집성하면서도 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월성의 이칭(재성), 방위(동남쪽), 둘레(1023보) 등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저본 자료의 계통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¹⁴⁾ 가-①과 가-④의 기록을 연결하여 지리지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편찬자가 후대의 지리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고려시대 경주읍성이 ‘금성’으로 통칭되었던 사실과 『삼국사기』 지리지 편찬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추정(정연식, 2016: 46-48)에 따라, 지리지에만 나타나는 ‘금성 동남쪽의 월성’이라는 방위 표현은 고려시대 경주읍성을 기준으로 한 편찬자의 재서술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나-③은 60년의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이미 “월성 서리(西里)”라는 지명을 전제로 시림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은 101년에 축조된 것으로 전하므로, 이는 사건 발생 시점과 서술 시점 사이의 지리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나-③의 방위 표현은 후대의 편찬 및 전승 과정에서 형성된 지리 인식이 개입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금성과 월성을 둘러싼 방위 서술에는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가 중첩되어 있으며, 그 결

12) 『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古跡, “金城在府東四里”

13) 구체적으로 경주읍성 또는 그 근처(김병모, 1984: 128; 전덕재, 2009: 173-174) 앞천 유역(이원근, 1980: 350-351), 경주읍성지와 성동동 전랑지 사이(강종원, 1992: 220), 북천 이북의 황성공원 근처나 황성동 일대(김호상, 1999: 41-47; 황보은숙, 2009: 165-180; 이근직, 2013: 42-45), 첨성대 부근(이기봉, 2007: 218-219; 김창현, 2008: 100), 황남동-사정동의 미고지 일대(여호규, 2021: 16-30) 등으로 비정해왔다.

14) 『삼국사기』의 新羅志 작성에는 지방의 邑誌나 古記 등의 내용이 첨입되는 등, 본기나 열전의 저본 자료 구성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덕재, 2017: 34-35)

과 일정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선에는 경주분지 중앙부 자체의 공간적 특성도 작용하였다. 당시 이 일대는 아직 미개척된 산림수택 지역으로, 지명과 경계 인식이 후대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시림 또한 오늘날의 계림처럼 명확히 구획된 숲이 아니라, 나무가 산발적으로 자라나 경계가 불분명한 숲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림의 방위는 금성 또는 월성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리 서술될 수 있었다. 가-③에서 시림을 금성 서쪽으로 서술한 것은 해당 기록이 월성 축조 이전, 즉 금성을 기준으로 공간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후대 편찬 과정의 개입과 미개척지로서의 공간적 특성이 겹치면서 두 사서의 방위 기술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사서의 내용이 반드시 상충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한편 금성이 실체를 갖추지 않았다는 회의론, 즉 금성을 왕정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南勝浩, 2004: 8)이나 왕의 거처에 사용한 일반명사(윤무병·김종철, 1972: 127-128), 또는 월성의 이칭(박방룡, 2013: 184)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라본기에는 458년 금성의 남문이 지진으로 무너지고¹⁵⁾ 482년 불탔다는 기록¹⁶⁾을 끝으로 금성에 대한 직접적 기술이 사라지며, 그 직후인 487년 월성 수축,¹⁷⁾ 488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왕의 이거(移居),¹⁸⁾ 496년 궁실 중수 기록¹⁹⁾이 이어진다. 이는 금성과 월성이 별개의 실체로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승계해 갔음을 시사하며, 금성을 단순한 일반명사나 월성의 이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금성은 남산 서록 일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확한 위치 비정은 향후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기다려야 하며, 본고는 초기 왕권의 거점이 남산 서록과 깊은 관련을 가졌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산 서북편 일대에서는 1세기 중후엽의 수장급 무덤인 탑동 1호묘(박종섭 외, 2011: 217-220)를 비롯한 분묘군이 기원전후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²⁰⁾ 또한 탑동 서편의 오릉(五陵)·사릉(蛇陵), 나정(蘿井) 일대에서 확인된 환호·목책 구조를 갖춘 초기철기시대의 수혈 유구(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41) 등은 혁거세 설화의 공간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²¹⁾ 이러한 자료만으로 금성의 위치나 초기 왕실의

1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42년, “春二月 地震 金城南門自毀”

1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4년, “春二月 大風拔木 金城南門火

1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秋七月 葺月城

1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0년, “春正月 王移居月城

1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 “三月 重修宮室”

20) 2010년부터 탑동 일원에서 삼국시대의 분묘 약 180여기, 매납유구 약 30여기가 조사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130). 그중 사로국 건국기의 사정을 전하는 목관묘가 3기 확인되었는데, 탑동 21-34번지의 1호묘는 1세기 중엽, 20-1번지의 2호묘는 기원전 1세기 후엽, 3호묘는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이양수, 2022: 77)

실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으나, 사로국 지배집단이 남산 일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정황으로서 문헌 기록과 함께 해석될 수 있다.

초기 궁성의 규모는 고구려 주몽이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거주하였다는 기록²²⁾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소박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²³⁾ 이후 138년 정사당(政事堂)의 설치,²⁴⁾ 249년 궁궐 남쪽의 남당(南堂),²⁵⁾ 사방에 성문이 존재하였다는 기록²⁶⁾ 등을 통해 궁성의 외형과 구조가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남산 서록이라는 입지 조건은 왕권의 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정치·행정 공간 수요를 수용하는 데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로국의 정치적 성장에 따라 산지 주변 공간만으로는 확대되는 정치 활동과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경주분지 중앙부를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산 서록 일대의 거점은 지리적 한계와 환경적 취약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신라본기에는 민가가 함몰되어 못이 되고(123년),²⁷⁾ 비바람으로 성문이 무너지거나 큰 나무가 뽑혔으며(80년, 96년, 160년),²⁸⁾ 인근 민가 300여 채가 화재를 겪는(262년)²⁹⁾ 등 금성 및 주변 일대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외적의 침입과 포위 대상이 된 사례도 확인된다(14년, 232년, 297년, 346년, 393년).³⁰⁾ 물론 『

21)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혁거세왕, “理國六十一年王升于天 七日後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亦名蛇陵 曇嚴寺北陵是也”

2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원년, “遂欲都焉 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23) 사로국 초기 금성 단계의 궁성을 환호취락 정도로 간주한 의견도 있다(황인호, 2023: 117)

2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5년, “春二月 置政事堂於金城”

25) 남당의 위치에 대해서는 월성 안 동남쪽의 政廳 건물이나(전덕재, 2009: 196), 금성의 정궁 남쪽(여호규, 2014: 36-37) 등으로 파악하며, 남당을 都堂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해(『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첨해이사금 3년 “秋七月 作南堂於官南[南堂或云都堂]”) 그 위치를 월성 남쪽의 도당산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박방룡, 2013, 앞의 책, 48-52쪽)

2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24년, “夏四月 京都大風 金城東門自壞”;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21년 “春二月 宮南門災”;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7년, “夏四月 暴雨 關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毀”;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벌휴이사금 13년, “夏四月 震官南大樹 又震金城東門”;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원년, “秋七月, 金城西門災, 延燒人家三百餘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14년, “秋七月 大關於穴城原 又御金城南門觀射”;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2년, “春二月 地震 金城南門自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4년, “春二月 大風拔木 金城南門火”

2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12년, “五月 金城東民屋陷爲池 芙蓉生”

2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24년, “夏四月 京都大風 金城東門自壞”;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17년, “秋七月 暴風自南 拔金城南大樹”;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7년 “夏四月 暴雨 關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毀”

29)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원년 “秋七月 金城西門災 延燒人家三百餘區”

3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11년, “樂浪謂內虛 求攻金城甚急”;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조분이사금 3년, “夏四月 倭人猝至圍金城”;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유레이사금 14년, “伊西古國來攻金城”;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흘해이사금 37년, “倭兵猝至風島 抄掠邊戶 又進圍金城急攻”;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나몰이사금 38년, “夏五月 倭人來圍金城 五日不解”

삼국사기』의 재해 기사는 재이(災異)를 정치적 질서와 연관짓는 천인감응적 사유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어 이를 모두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외부 침입에 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금성 일대가 지닌 입지적 취약성이 당시 인식 속에서도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적 불안정성과 방어상의 제약은 사로국 지배집단이 경주분지 중앙부의 미개척 산림수택 공간을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하게 되는 배경을 이룬다.

III. 월성 입지 선정과 산림수택

남산 일대가 사로국 초기 왕권의 근거지였다면, 그 북쪽의 경주분지 중앙부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었을까. 본 장에서는 탈해의 월성 입지 전승과 고구려·백제 초기 도읍지 선정 기록을 비교하여, 초기국가에서 왕성 입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택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① 양산(楊山) 아래 호공(瓠公)의 집을 바라보고는 길지(吉地)라 여겨 속임수를 써서 취하여 살았다. 그 땅은 뒤에 월성이 되었다.³¹⁾

다-② 그 아이(탈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에 올라 돌집을 지어 칠일 머물렀다. 성 안의 살만한 곳을 살펴보니 초승달[三日月] 모양의 봉우리가 하나 보였는데 지세가 오래 머물 만한 땅이었다. 이내 내려와 찾으니 바로 호공의 집이었다.³²⁾

라-① 졸본천에 이르러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과 하천이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도읍하려고 하였다.³³⁾

라-② 신이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암에 이르렀는데, 그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은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또 큰 사슴·사슴·물고기·자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약 도읍을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이 무궁할 뿐 아니라, 전쟁의 걱정도 면할 만합니다.³⁴⁾

3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원년, “望楊山下瓠公宅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32)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알지탈해왕대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含山上 作石塚留七日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峯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即瓠公宅也”

33)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 원년, “至卒本川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34)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명왕 21년,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地宜五穀 又多

라-③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만한 땅을 살폈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이 하천 남쪽의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두르고, 동으로 높은 산을 의지하며, 남으로 비옥한 늪을 바라보고, 서로 큰 바다에 막혔 습니다. 하늘이 내린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우니, 이곳에 도읍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돌아가 살았다. …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³⁵⁾

『삼국사기』는 2세기 초 파사이사금대 새 궁성인 월성이 조성되었다고 전한다(가-④). 월성 축성 이전 탈해는 이곳을 ‘길지’ (다-①)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는 살만한 땅(다-②)으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탈해가 월성 부지를 ‘길지’로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고구려와 백제에서 초기 도읍지를 정할 때에는 농경에 적합한 토양(라-①, ②, ③), 수렵과 어로의 산물이 풍족한 환경(라-②), 그리고 외부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험준한 지세(라-①, ②, ③) 등 생태적·지리적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비류가 미추홀의 습윤한 토양과 염분을 이유로 정착에 실패한 사례(라-③)는, 방어적 조건이나 자원적 가치뿐 아니라 수문환경의 안정성 역시 도읍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해당 기록들이 설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초기국가 단계에서 도읍을 선정할 때 이러한 환경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지배집단 역시 초기 근거지인 남산 일대에서 경주분지 중앙부의 생태환경과 지형적 조건을 조망하며(다-①, 다-②), 새로운 궁성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탈해가 월성 부지를 ‘초승달 모양의 봉우리’로 묘사한 것(다-②)은 발천과 남천, 그리고 그 주변의 저습지에 둘러싸인 지형 경관을 멀리서 조망한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월성 부지는 남천과 발천, 그리고 광범위한 주변 저습지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솟아 오른 하안단구 지형으로서(장기명, 2024a: 15-16), 수문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거주 및 축성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지였다고 볼 수 있다.³⁶⁾ ‘길지’란 이러한 하천·습지·숲이 결합된 산림수택의 환경적 조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35)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원년, “遂至漢山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 沸流以彌鄒玉濕水鹹 不得安居”

36) 발굴조사에 따르면, 3세기 전~중엽 월성 남성벽 일대의 연약 지반에 대한 기반 조성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장기명, 2024a: 37). 이곳은 상대적으로 미고지였으나, 축성과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기반 조성 작업(장기명, 2024a: 21)이 선행되어야 했다.

월성 일대 산림수택이 새 궁성지로 주목될 수 있었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원으로서의 가치이다. 사로국 초기 지배집단의 근거지였던 남산 일대와 비교할 때, 경주분지 중앙부는 미개척된 산림수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³⁷⁾ 이는 농업뿐 아니라 수렵·어로 활동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방어상의 이점이다. 남천과 발천, 그리고 광범위한 저습지는 외부 세력의 접근을 제약하는 지형적 장애물로 기능할 수 있었다.³⁸⁾ 셋째, 왕권의 기원 전승과 결합된 상징성이다. 탈해가 호공의 집터를 빼앗아 거주했다는 전승(다-①), 시림(계림)이 김알지 탄생 설화의 무대로 등장하는 점(나-③), 발천의 명칭이 알영의 탄생 서사와 연결되는 점(나-②) 등은 월성 일대가 왕권의 기원 서사와 밀접하게 결합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시조 전승에서 숲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³⁹⁾을 고려하면, 숲과 습지는 일상적 생활 공간과 구별되는 비밀상적인 신성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⁰⁾ 특히 경주분지 중앙부가 왕경 개발 이전까지 광범위한 산림수택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자연환경이 왕권의 상징 체계와 결합할 수 있었던 조건을 제공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잠재적 가능성의 차원이었다. 광범위한 산림수택은 그 자체로 인간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수문환경의 영향이 강한 곳에 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환경 제어가 선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월성 입지의 형성은 환경 조건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조건을 점유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축적과 맞물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¹⁾

37) 왕경개발 이전 경주분지 중앙부가 광범위한 숲과 습지 환경이었다는 점은 (서민수, 2018: 65-78) 참조.
38) 신라의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삼국사기』에는 부여왕이 고구려군을 기습하려다 진창에 빠져 철수한 사례(『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5년, “春二月 王進軍於扶餘國南 其地多泥塗王使擇平地爲營 解鞍休卒 無恐懼之態 扶餘王舉國出戰 欲掩其不備 策馬以前 陷淖不能進退)와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당시 요택의 진창 때문에 사람과 말이 건너지 못한 사례(『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帝至遼澤 泥淖二百餘里 人馬不可通”)가 보인다. 이러한 기록은 습지대가 고대 전쟁에서 군대의 이동을 제약하는 자연 장애물이었음을 보여준다.

39) 혁거세는 양산 기슭의 나정 곁 숲속[蘿井傍林間]에서 발견되었고(『삼국사기』 권1, 고구려본기1, 혁거세거서간 원년,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剖之 有嬰兒出焉”), 알지는 시림(=계림)에서 태어났다(가-③, 나-③). 탈해의 경우 『삼국유사』에서 阿珍義先이 배를 숲 아래 나무[一樹林下]에 두고 길흉을 점쳤다고 전한다(『삼국유사』 기이1 제사탈해왕, “乃赫居王之父尺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崑何因鵲集而鳴 擎舡尋之 鵲集一舡上舡中有一櫃長二十尺廣十三尺 曳其舡置於一樹林下而未知凶乎吉乎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有端正男子 并七寶奴婢滿載其中”). 신라의 시조 전승에는 모두 숲이 등장하는 셈이다.

40) 신라 시조신화에서 혁거세·알지·탈해의 출현과 발견이 모두 숲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숲이 왕권의 기원 서사와 신성성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숲과 같은 미개척 자연공간이 인간의 일상 영역과 구별되는 신성한 경계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서민수, 2017, 「삼국 초창기의 숲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103, 48-49쪽 참조.

41) 탈해가 대장장이 집안 출신으로 솥과 솥돌을 이용해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는 설화(『삼국유사』 기이1 제사탈해왕,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峯如三日月勢可久之地 乃下尋之即瓠公宅也 乃設詭計潛埋斫

IV. 월성의 형성과 산림수택의 공간 전환

1. 경주분지 중앙부의 개발 지체

월성이 자리한 경주분지 중앙부는 사로국 형성기부터 곧바로 개발된 공간이 아니었다. 산림수택의 점유와 궁성 공간의 형성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월성 주변의 수문환경과 고고학적 정황을 검토하여 이러한 공간 전환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주분지 중앙부의 유적 조성이 주변부에 비해 지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천 이남의 탑동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분묘군이 조성되었고(장기명, 2024a: 35), 거의 같은 시기 나정의 1차 제의 시설물⁴²⁾과 문헌상의 금성·궁실도 세워졌다. 북천 이북의 황성동 지역 역시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주거지, 제철 유적, 분묘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으며, 3~4세기경에는 이 지역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확장되었다(황보은숙, 2009: 11).

반면 경주분지 중앙부에서는 2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월성 북편을 중심으로 일부 취락(최병현, 2014: 129)과 분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⁴³⁾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월성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 유적 분포가 확대되었다(황보은숙, 2009: 9-10). 사로국 형성 이전인 청동기시대에도 일부 주거지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1~2동 규모의 산발적 형태에 그쳐 마을 단위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석묘 역시 경주분지 중앙부보다는 주변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장우영, 2020: 130-132; 장기명, 2020: 133-134). “조선유민이 산곡지간(山谷之間)에 나뉘어 살며 6촌(村)을 이루었다”⁴⁴⁾는 기록 역시 초기 정착이 경주분지 중앙부의 저습한 평탄지보다는 산지와 곡간 주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주분지 중앙부 산림수택으로의 진출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隣鄉 而人取居之 請掘地檢看 從之果得礪炭 乃取而居”)는, 비록 설화적이지만, 사로국의 초기 지배집단이 철기 생산과 관리에 관여하며 권력 기반을 형성하고 월성 부지를 점유해나갔음을 시사하는 서사로 참고된다.

42) 나정에 최초로 조성된 구조물은 나정 중앙부에 위치한 수혈(436×248×170cm)과 이를 둘러싼 환호 및 목책이었다. 수혈은 주거와는 무관한 특수 목적의 구덩이로, 주변에서 제사 용기를 포함한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41쪽)

43)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월성 북서편 1호 유구로,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분묘로는 황남동 95-6번지 1호묘·8호묘, 인왕동(경주소) 2호 목곽묘 등이 2세기 중~후엽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장기명, 2024b: 393).

4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원년,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이러한 공간적 비대칭성에 대해 기존 연구는 북천의 주기적 범람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북천은 장마철이면 명활산의 북쪽 협곡에서 유입된 수량으로 인해 경주 분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소하천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인위적으로 통제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범람과 침수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왔다. 이에 따라 6세기 경 치수 사업과 저습지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吳英勳, 1992: 22; 金在弘, 1995: 62; 박방룡, 2001: 38-41; 李起鳳, 2002: 50-51; 강봉원, 2005: 11-12; 이근직, 2006: 194-195).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수재 기록 30여 건 중 북천인 ‘알천(關川)’의 범람을 명시한 사례는 3건⁴⁵⁾에 불과하여, 이를 만성적 범람의 직접적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변에 집중 분포하는 경주분지의 숲을 범람 방지 및 유량 조절을 위한 의도적 조림의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李起鳳, 2002: 35-41; 강봉원, 2005: 11-12; 이근직, 2006: 196-198),⁴⁶⁾ 『동경잡기(東京雜記)』나 『조선의 임수(朝鮮の林藪)』 등에 나타나는 후대의 숲 경관을 신라 시기로 직접 소급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주의가 필요하다.

경주분지 중앙부의 유적 조성 지체를 설명하는 데에는 오히려 선상지 지형 특성에 따른 저위면 지하수의 용출과, 그로 인한 용천천(涌泉川)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상일·윤순옥, 2005: 245-246). 이로 인해 주변 일대에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면서 저습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황룡사지와 동궁·월지 등에서 확인되는 신라 문화층 이전의 습지 퇴적층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56~5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2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3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19-2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52-53). 근대 제작 지도와 지형 분석에서도 이 일대에 미저지와 습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이 확인되므로(심현철, 2018: 246), 경주분지 중앙부는 단발적 범람만이 아니라 저지대 전반이 상시적으로 습윤한 환경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⁴⁷⁾

45)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7년, “夏四月 暴雨 關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 “夏五月 大雨 關川水漲 漂沒二百餘家”;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원년,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關川水漲周元不得渡”

46) 그밖에 북서풍과 하천의 측방침식을 막으려 하천변의 숲을 방풍림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했다(황상일, 2007, 「고대 경주 지역의 홍수 가능성과 인간 활동」, 『대한지리학회지』 42-6, 893-894쪽).

47) 이사금-마립간기에 다수 기록된 ‘땅이 균열되면서 샘이 솟는’ 현상도 당시 수문 환경을 반영한 실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11년, “京都地裂 泉湧”;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기림이사금 7년, “秋八月 地震 泉湧”;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15년, “夏五月 吐含山崩 泉水湧 高三丈”;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년, “夏四月 牛谷水湧”

2. 수문환경의 제어와 월성의 형성

월성의 입지 조건은 이러한 수문환경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월성은 남천을 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쪽으로는 발천(撥川)이 첨성대와 월성 사이를 지나 남천으로 합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발천은 1~2m 폭의 건천에 불과하지만, 고대에는 최대 16~18m에 달하는 하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 일대에 광범위한 저습지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차순철, 2021: 180). 앞 장에서 살펴본 ‘초승달 모양의 봉우리’ (다-②)라는 표현은 남천과 발천, 그리고 광범위한 저습지에 둘러싸인 월성 부지의 지형 경관을 외부에서 조망한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월성은 주변 저습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하안단구에 위치하면서도, 수문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형 조건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자원 접근성과 방어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으나, 안정적인 거주지 및 궁성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환경 개입과 제어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과 이에 대한 대응 양상은 월성 인근 취락 및 분묘의 입지와 축조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3세기 전후 월성 북편에 형성된 취락과 분묘는 용천천과 저습지로 구성된 미저지를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대를 선택적으로 점유하는 경향을 보인다(심현철, 2018: 245-249). 이는 사로국 지배집단의 경주분지 중앙부 진출이 수문환경의 제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의 점유 확대는 목곽묘의 확산,⁴⁸⁾ 철기 부장의 증가(장기명, 2014: 101-102), 새로운 철제 농공구의 등장(이하나, 2013: 90-92; 장기명, 2023: 93-110) 등 지배층의 물질적 기반 및 동원 역량의 성장과도 대체로 병행하였다.

이러한 환경 제어 역량의 증대는 이후 월성의 성곽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벽 북쪽에는 폭 25~45m 규모의 수혈해자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발천 및 기존 하도의 유로를 조정하고 배수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된다(장기명, 2021: 51-54). 이는 월성의 축조가 방어 시설의 구축에 그치지 않고, 주변 수계를 정비하여 궁성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월성 자체의 축조 과정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파사이사금 22년(101년) 월성이 축조되었다(가-④). 그러나 월성 A지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서성벽 기저부는 4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으며, 성벽은 5세기를 전후하여 완공

48) 목곽묘는 수장 권력의 성장과 매장 의례 강화에 따른 부장 공간 확대의 결과로 출현하였다고 설명되며(李盛周, 1997: 31), 실제 목곽묘에서 부장 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급증한 점을 당시 사회 내부의 변동과 권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있다(李熙濬, 2011: 174-175).

된 것으로 분석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 35-38). 또한 남성벽 구간은 남천 범람으로 인해 모래층이 퇴적된 연약지반에 해당하며, 3세기 전·중엽에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4세기 중·후엽에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다(장기명, 2022: 21-30; 장기명, 2024a: 21). 이러한 시간적 간극은 2세기 초의 기사를 후대의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초기 점유와 후대 성곽화가 중첩된 과정의 반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사이사금기의 ‘월성’은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토성이 아니라, 환호나 목책과 같은 초기 위곽(圍郭) 시설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⁴⁹⁾ 이 경우 2세기 초의 ‘월성 축조’ 기사는 경주분지 중앙부에 대한 사로국 지배집단의 초기 점유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후 4-5세기의 본격적 성벽 조성은 환경 제어 역량의 축적과 궁성 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보여주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사로국 이래 축적된 환경 제어 역량과 지배집단의 물질적·동원 역량의 성장과 대체로 연동하여 전개되었다. 즉 월성은 한 번에 완성된 궁성이 아니라, 산림수택이 왕권의 선택과 개입을 통해 점차 궁성으로 전환된 공간이었다. 특히 5세기 후반에는 월성 수축과 왕의 월성 이거뿐 아니라 방리명 설정, 우역·관도 정비, 시장 개설 등 도시 기반과 관련된 조치가 연이어 나타나는데, 이는 월성 중심지화가 이후 왕경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월성의 형성은 경주분지 중앙부의 자연환경이 지닌 가능성과 제약 속에서 왕권의 공간적 선택과 환경 개입이 축적되며 전개된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환은 이후 경주 왕경의 형성과 전개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이 되었다.

V. 맺음말

본고는 사로국 초기 왕권의 중심 공간이 남산 서록 일대의 금성에서 경주분지 중앙부의 월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경주분지 산림수택의 공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금성·궁실·시립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로국 초기 지배집단의 거점은 남산 서록 일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두 사서에 나타나는 방위 서술상의 혼선은 서로 다른 시점의 지리 인식이 후대 편찬 과정에서 중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탐동 분묘군과 나정 일대의 고

49) 월성이 대규모 토성으로 축조된 것은 4세기 중·후엽이지만, 그에 앞서 3세기에 환호나 목책 같은 위곽 시설물이 월성 부지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최병현, 2016: 78; 황인호, 2023: 115)

고학적 정황 역시 이러한 해석을 보완하는 간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금성과 궁실의 구체적 실체는 아직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탈해의 월성 입지 전승과 고구려·백제 초기 도읍지 선정 사례를 비교한 결과, 초기 국가 단계에서 왕성 입지는 토양과 수문 환경, 수렵·어로 자원, 방어적 지세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지배 집단 역시 남산 일대에서 경주분지 중앙부의 산림수택을 조망하며, 해당 공간이 지닌 자원적 가치와 방어적 이점, 그리고 왕권 기원 서사와 결부된 상징성을 새로운 왕성 입지의 조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경주분지 중앙부의 수문 환경과 월성 주변 고고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월성의 형성은 단일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과정으로 파악된다. 경주분지 중앙부는 용천천과 저습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산림수택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초기 정착과 개발이 주변부에 비해 지체되었다. 그러나 사로국 이래 축적된 환경 제어 역량과 지배집단의 물질적·조직적 동원 능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초기 점유 단계에서 거주가 확산되고, 성곽 축조를 거쳐 궁성 중심지로 전환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전환은 사로국 왕권이 경주분지 중앙부의 산림수택을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산 서록의 국지적 거점에서 분지 중앙부의 광역 공간으로 정치적 중심 무대가 이동함으로써 왕권이 관장하는 공간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저습지를 회피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연약지반의 조성 and 성곽 축조를 통해 환경을 재편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 셋째, 시림과 발천 등 자연환경 요소는 왕권 기원 서사와 결합되면서 정치적 상징으로 전유되는 동시에, 궁성 공간의 물리적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이처럼 월성의 형성은 왕성 입지의 이동을 넘어, 경주분지 중앙부의 자연환경을 왕권이 정치 공간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환경 제어 경험과 물질적 기반은 이후 경주 왕경의 형성과 도시 구조 재편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금성에서 월성으로의 전환은 자연환경과 왕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주분지의 산림수택이 정치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6.04.30, 심사개시일: 2026.05.21, 게재확정일: 2026.06.15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輿地勝覽』

강봉원, 2005,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신라문화』 25: 337-360쪽.

강종원, 1992,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 『백제연구』 23: 203-242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황룡사연구소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동궁과 월지Ⅰ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경주 동궁과 월지Ⅲ 발굴조사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쪽샘 vs 탐동: 적석목곽묘 전성시대』,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병모, 1984, 「도시계획」, 『역사도시 경주』, 파주: 열화당.

김재홍, 1995,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韓國古代史論叢』 7.

김창현, 2008,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9: 79-140쪽.

김호상, 1999, 「신라 왕경의 금성 연구」, 『경주사학』 18: 27-49쪽.

남승호, 2004, 「新羅 金城의 意味와 範圍」, 『大丘史學』 74: 1-28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박경택, 2017, 「신라 금성 위치 비정에 대한 諸論과 향후 과제」, 『동아시아고대학』 45: 93-119쪽.

박대재, 2009, 「『三國遺事』 판본의 몇 가지 문제점」, 『점교 삼국유사: 부록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삼국유사 목판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대재, 2014, 「신라 초기의 國邑과 6村」, 『신라문화』 43: 329-364쪽.

박방룡, 2001, 「皇龍寺와 新羅王京의 造成」,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26: 33-53쪽.

박방룡, 2013, 『신라도성』, 서울: 학연문화사.

박종섭 외, 2011, 「경주 탐동 21-3·4번지 유적」,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경북 2』,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민수, 2017, 「삼국 초중기의 숲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103: 43-75쪽. <http://doi.org/10.35865/YWH.2017.03.103.43>

서민수, 2018, 「신라 중고기 왕경의 숲 개간과 경관변화」, 『한국문화』 81: 63-92쪽. <http://doi.org/10.22943/han.2018.81.00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皇龍寺 廣場과 都市Ⅰ: 황룡사 대지와 후대 유구』, 경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심현철, 2018, 「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문화재』 51-4: 234-253쪽. <http://doi.org/10.22755/kjchs.2018.51.4.234>
- 오영훈, 1992, 「新羅王京에 대한 考察」, 『경주사학』 11: 1-39쪽.
- 여호규, 2014, 「6~8세기 신라 왕궁의 구조와 정무·의례 공간의 분화」, 『역사와 현실』 94: 33-74쪽.
- 여호규, 2021, 「신라 上古期の 도성 구조와 金城·月城의 성격」, 『신라문화』 58: 7-41쪽.
- 윤무병·김종철, 1972,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처.
- 이근직, 2006, 「신라 왕경의 성립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15-4: 191-210쪽.
- 이근직, 2013, 『천년의 왕도, 천년의 기억』, 서울: 학연문화사.
- 이기봉, 2002,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대한 地理的 研究」, 『地理學論叢』 45: 1-238쪽.
- 이기봉, 2007, 『고대 도시 경주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 이성주,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 『新羅文化』 14: 19-53쪽.
- 이양수, 2022,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39: 55-86쪽.
- 이원근, 1980, 『삼국시대 성곽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욱, 1982,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서울: 일조각.
- 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86: 76-117쪽.
- 이희준, 2011,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 『신라문화』 38: 137-186쪽.
- 장기명, 2014, 「경주지역 원삼국시대 분묘의 철기 부장유형과 위계」, 『한국고고학보』 92: 80-123쪽.
- 장기명, 2020, 「신라 왕경의 조성 원리와 운영체계」, 『영남고고학』 88: 129-174쪽. <http://doi.org/10.47417/yar.2020.88.129>
- 장기명, 2021, 「월성 해자의 조사 성과와 고환경 연구와의 접점」, 『신라문화』 58: 43-70쪽.
- 장기명, 2022, 「신라왕경 토성의 축성 기술」, 『신라와 가야의 토목기술』,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장기명, 2023, 『철 생산과 의례를 통해 본 사로국의 형성과 성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기명, 2024a, 「사로국 시기 월성 취락이 제기하는 쟁점」, 『월성 이전 사로국 시기 취락 전문가포럼 자료집』, 경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장기명, 2024b, 「월성북고분군의 변천과 마립간기 6부의 내부 조직」, 『한국고고학보』 132: 383-422쪽. <http://doi.org/10.47439/JKRAS.2024.3.383>
- 장우영, 2020, 「경주 북천 옛 물길과 유적 형성과정의 기초 연구」, 『신라문화』 57: 123-153쪽. <http://doi.org/10.37280/JRISC.2020.12.57.123>
- 전덕재, 2009, 『신라왕경의 역사』, 서울: 새문사.

- 전덕재, 2017, 「『三國史記』 地理志의 原典과 編纂: 新羅志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29: 183-238쪽. <http://doi.org/10.17751/DHR.129.183>
- 전덕재, 2022, 「신라 왕경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라 왕경의 도시구조와 월성』,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고대사학회.
- 정연식, 2016, 「신라 금성(金城)의 위치 고증」, 『한국사연구』 173: 39-84쪽.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경주 나정』, 성남: 중앙문화재연구원.
- 차순철, 2021, 「경주왕경의 배수체계를 통해 본 발천의 의의」, 『발천, 신라왕경의 옛 물길』, 대전: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최병현,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韓國考古學報』 90: 120-163쪽.
- 최병현, 2016, 「경주 월성과 신라 왕성체제의 변천」, 『韓國考古學報』 98: 48-91쪽.
- 황보은숙, 2009, 「금성의 위치 비정」, 『신라문화』 34: 161-192쪽.
- 황상일, 2007, 「고대 경주 지역의 홍수 가능성과 인간 활동」, 『대한지리학회지』 42-6: 879-897쪽.
- 황상일·윤순옥, 2005, 「경주선상지의 지형발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6: 227-263쪽.
- 황인호, 2023, 『신라 왕경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劉翠溶, 1999, 「中國歷史上關於山林川澤的觀念和制度」, 『經濟成長·所得分配與制度演化』, 台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中心.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 Kim, Busik. *Samguk sagi*. 三國史記.
 Iryeon. *Samguk yusa*. 三國遺事.
 Dongguk yeoji seungnam. 東國輿地勝覽.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8. *Gyeongju Najeong*. Seongnam: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Cha, Soon Chul. 2021. “The Significance of the Palcheon Stream as Viewed Through the Drainage System of the Silla Capital” In *Palcheon, Balcheon, the Old Waterways of Silla’s Royal Capital*. Yeongcheon: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roject Team for Core Sites of the Silla Capital,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t al.
- Chang, Wooyoung. 2020. “Preliminary Study on Paleochannels and Site Formation Process in Gyeongju Bukcheon Stream”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57: 123–53. <http://doi.org/10.37280/JRISC.2020.12.57.123>.
- Choi, Byung Hyun. 2014. “The Formation of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Gyeongju and the Location of the Silla Royal Tombs of the Maripgan Period” *Hanguk Kogo-Hakbo* 90: 120–63.
- . 2016. “Wolseong Fortress in Gyeongju and the Development of the Royal Fortress System of Silla” *Hanguk Kogo-Hakbo* 98: 48–91.
- Chung, Yeon Sik. 2016. “A Research for the Location of Geum-Seong(金城) Castle of Silla”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73: 39–84.
-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1984. *Excavation Report of the Hwangnyongsa Temple Site I*. Seou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Excavation Report on the Sites within the Planned Construction Site of the Gyeongju Hwangnyongsa Research Center*.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2012. *Excavation Report of Gyeongju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I*.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2019. *Excavation Report of Gyeongju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III*.

-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2020. *Jjoksam vs. Tapdong: The Golden Age of Wooden-Chamber Tombs with Stone Piles*.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wang, In ho. 2023. “A Study on the Royal Capital of the Silla.” PhD diss., Dong-A University.
- HWANG, Sang-Il. 2007. “The Possibility of Flooding and Human Activities of Gyeongju Area in Ancient tim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 (6): 879–97.
- HWANG, Sang-Il, and Yoon Soon-Ock. 2005. “Geomorphic Development of the Gyeongju Alluvial Fan” *Proceedings of the Silla Cultural Festival* 26: 227–63.
- Hwangbo Eun-sook. 2009. “A Study on the Geum-seong Location”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34: 161–92.
- Jang, Kimyeong. 2014. “Ironware Burial Patterns and the Hierarchy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ombs of Gyeongju” *Hanguk Kogo-Hakbo* 92: 80–123.
- . 2020. “The Principles of 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ng Systems of the Silla Wanggyeong”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88: 129–74. <http://doi.org/10.47417/yar.2020.88.129>.
- . 2021. “Interface with the Survey Performance of Wolseong Moat and Palaeo-Environmental Research”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58: 43–70.
- . 2022. “Construction Technology of Earth Fortifications in Silla Royal Capital” In *Civil Engineering Technologies of Silla and Gaya*.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2023. “Formation and Growth of Saro-guk through Iron Production and Ritualization” PhD di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2024a. “Issues Raised by the Saro-guk Period Settlement at Wolseong” In *Proceedings of the Expert Forum on Saro-guk Period Settlements before Wolseong*. Kyŏ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2024b. “Transformation of Wolseong North Ancient Tombs and 6 Bu Organization of the Maripgan Period” *Hanguk Kogo-Hakbo* 132: 383–422. <http://doi.org/10.47439/JKRAS.2024.3.383>.
- Jeon, Deogjae . 2009. *History of the Silla Royal Capital*. Seoul: Saemunsa.
- . 2017. “A study on the basic original text and compilation of the Samguksagi’s Geography section –focused on the Sillaji–” *DAEGUSAHAK* 129: 183–238. <http://doi.org/10.17751/DHR.129.183>.
- . 2022. “A Study on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Silla Wanggyeong research”

- In *The Urban Structure of the Silla Capital and Wolseong*.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The Korean Ancient History Society.
- Kang Bong Won. 2005. "A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in Water Management of the Buk Chun in Kyongju: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es"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25: 337-60.
- Kang Jong-won. 1992. "On the Formation of the Silla Wangkyong" *Baekje Research* 23: 203-42.
- Kim, Byung-mo. 1984. "Urban Planning" In *Historic City of Gyeongju*. Paju: Youlhwadang.
- Kim Chang-hyun. 2008. "The Royal Capital of Silla and the Capital Fortress of Goryeo" *Proceedings of the Silla Culture Festival* 29: 79-140.
- Kim, Ho-sang. 1999. "A Study on the Location of Geumseong in the Silla Capital" *The KYONG-JU SA HAK* 18: 27-49.
- Kim Jae Hong. 1995. "The Development of Low Wetlands and Reorganization of Village Structure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Collected Papers on Korean Ancient History* 7.
- Lee Gibong. 2002. "A Geographical Study of the Extent and Zones of the Silla Royal Capital" *Journal of Geography* 45: 1-238.
- . 2007. *The Birth of Ancient City Gyeongju*. Seoul: Purun Yoksa.
- Lee, Jong-wook. 1982. *A Study of the History of State Formation in Silla*. Seoul: ILCHOKAK.
- Lee Ha Na. 2013. "The Changing Nature and Spread of Silla Iron Farming Tools" *Hanguk Kogo-Hakbo* 86: 76-117.
- Lee Hee-joon. 2011. "An Archaeological Study on 'Saro' State from the 1st Century B.C. to the 3rd Century A.D."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38: 137-86.
- Lee, Keun-jik. 2006.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illa Royal Capital"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5 (4): 191-210.
- . 2013. *A Thousand-Year Capital, A Thousand-Year Memory*. Seoul: Hakyoun Cultural Publishing.
- Lee, Sungjoo. 1997. "From Wooden Coffin Tombs to Wooden Chamber Tombs: An Examination of the Jungsan-ri and Daun-dong Sites in Ulsan"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14: 19-53.
- Lee, Won-Keun. 1980. "A Study of Fortificatio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PhD diss., Dankook University
- Nam Seung-ho. 2004. "The Meaning and Extent of Geumseong in Silla"

- DAEGUSAHAK 74: 1-28.
- Oh Young-hoon, 1992. "A Study of the Silla Royal Capital" *The KYONG-JU SA HAK* 11: 1-39.
- Park, Bang-ryong, 2001. "Hwangnyongsa and the Formation of the Silla Royal Capital" *Proceedings of the Silla Cultural Festival* 26: 33-53.
- . 2013. *The Capital City of Silla*. Seoul: Hakyoun Cultural Publishing.
- Park, Daejae, 2009. "Some Problems Concerning the Editions of the Samguk yusa" In *Punctuated and Collated Samguk yusa: Appendix, the Woodblock Edition of the Samguk yusa Held in Korea University Library*.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 2014. "Guk-eup(國邑) and Six Villages(6村) in the Early Silla"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43: 329-64.
- Park Jong-seop, et al, 2011. "The Archaeological Site at Lots 21-3 and 21-4, Tap-dong, Gyeongju" In *2010 Report on Small-Scale Excavation Surveys IV: Gyeongsangbuk-do 2*. Seoul: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Park, Kyoung-taek, 2017. "The Study of Silla Guem-seong's location problems and its henceforth task"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45: 93-119.
- Seo, Minsu, 2017. "Changes in the People's perception of the Forest:-Examination of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the Three dynasties period-" *Yöksa wa hyönsil* 103: 43-75. <http://doi.org/10.35865/YWH.2017.03.103.43>.
- . 2018. "Forest clearing and Landscaping change of royal Capital in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Hanguk Munhwa* 81: 63-92. <http://doi.org/10.22943/han.2018..81.003>.
- Shim, Hyun-cheol, 2018. "Paleotopography of the Gyeongju Basin and the location of the Silla Tombs of Daerungwon"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51 (4): 234-53. <http://doi.org/10.22755/kjchs.2018.51.4.234>.
- Si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8. *The Silla Urban Site South of Hwangnyongsa in Gyeongju*. Gyeongju: Si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 Yeo, Hogyu, 2014. "Internal structure of the Shilla Royal Palace, and the arrangement of spaces for State Affairs and Rituals, in the 6th~8th centuries" *Yöksa wa hyönsil* 94: 33-74.
- . 2021. "The Structure of the Capital in the Early Silla Period and the Character of Guemseong Fortress and Wolseong Fortress"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58: 7-41.
- Yi, Yang-su, 2022. "The Study on the Wooden Coffin Tombs in Tap-dong, Gyeongju and What the Finds Disclose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eased and their Roles in Foreign Relations"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9: 55-86.

Youn Moo-byung, and Kim Jong-cheol. 1972. "A Survey on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City of Gyeongju" In *Studies on the Scientific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eoul: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Secondary Sources in Chinese

Liu, Ts'ui-jung. 1999. "Zhongguo lishi shang guanyu shanlin chuanze de guannian he zhidu." In *Jingji chengzhang, suode fenpei yu zhidu yanhua*. Taipei: Zhongyang Yanjiuyuan Zhongshan Renwen Shehui Kexue Yanjiusuo Zhongxin.

Abstract

From Kŭmsŏng to Wŏlsŏng: The Spatial Transition of Royal Authority and *Sallim-sut'aek* Landscapes in the Kyŏngju Basin

Seo Minsu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oonchunhyang Universit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yal authori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t interprets this transition as a process through which *sallim-sut'aek* (山林藪澤)—a landscape of forests, streams, wetlands, and marshlands—w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political space.

By analyzing references to Kŭmsŏng, royal residences, and Sirim (始林) in the *Samguk sagi* and *Samguk yusa*, this study argues that the early Saro ruling elite maintained a political bas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estern slopes of Namsan. It also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defensive limitations of this area encouraged increasing attention toward the forested and wetland landscape of the central basin.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Talhae tradition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he Wŏlsŏng site and early capital-location narratives in Koguryŏ and Paekche indicates that the central Kyŏngju Basin was perceived as a favorable setting in terms of resource availability, defensive advantages, and symbolic authority. Drawing on archaeological evidence and studies of the basin's hydrological environment, this paper further reinterprets the gradual formation of Wŏlsŏng as a process of environmental control and spatial reorganization undertaken by royal authority.

The transition from Kŭmsŏng to Wŏlsŏng was therefore not merely a relocation of a royal center. Rather, it was a process through which royal authority appropriated and reorganized the forested and wetland landscape of the central Kyŏngju Basin into a political center. The experien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umulated through this process provide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formation of the royal capital and urban development of Kyŏngju.

Key words : Kŭmsŏng, Wŏlsŏng, Saro state, *sallim-sut'aek* (山林藪澤), spatial transition, environmental history